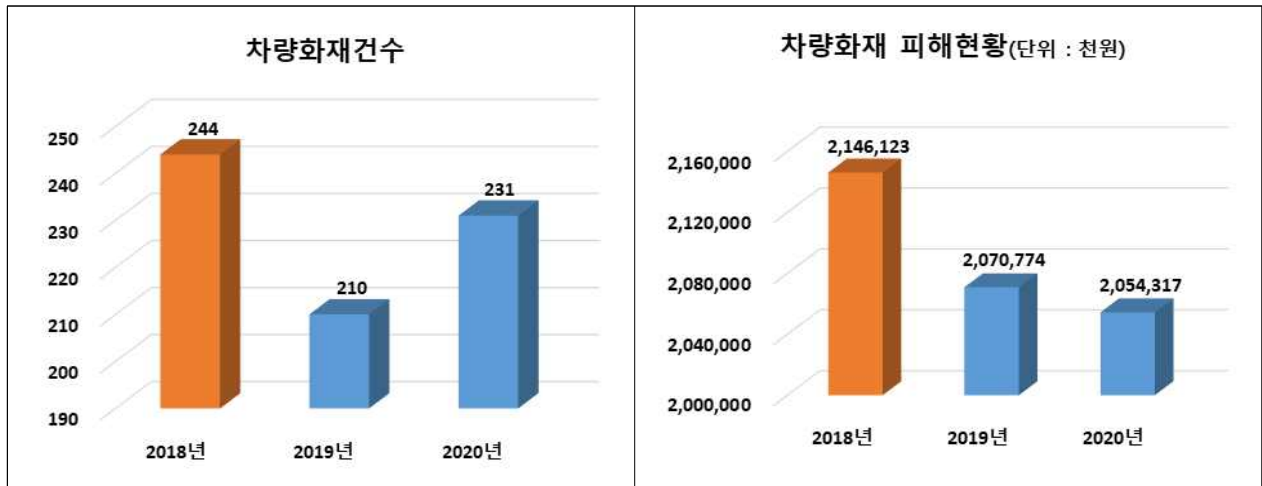


# 8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## =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안전 주의보 =

### □ 차량화재 출동현황(최근 3년간)



○ 최근 3년('18~'20년)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685건이며, 사망 6명, 부상 35명, 약 6,271,214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전체 차량화재 중 여름철(6월~8월)에 188건(27%)이 발생하여 여름철 차량화재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.

※ '18년 244건(사망1, 부상10), '19년 210건(사망2, 부상8), '20년 231건(사망3, 부상17)

### □ 차종별 화재현황(최근 3년간)

| 구분    | 계    | 승용차 | 화물차 | 버스 | 승합차 | 특수차 | 오토바이 | 농기계 | 건설기계 | 기타 |
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|
| 계     | 685  | 297 | 211 | 13 | 23  | 26  | 18   | 23  | 68   | 6  |
| 2018년 | 244  | 114 | 69  | 3  | 9   | 11  | 3    | 14  | 20   | 1  |
| 2019년 | 210  | 85  | 69  | 6  | 6   | 9   | 6    | 3   | 25   | 1  |
| 2020년 | 231  | 98  | 73  | 4  | 8   | 6   | 9    | 6   | 23   | 4  |
| 비율    | 100% | 43% | 31% | 2% | 3%  | 4%  | 3%   | 3%  | 10%  | 1% |

○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량이 전체의 43%(297건), 화물차량 31%(211건), 굴삭기 등 건설기계 68건,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26건, 승합차·경운기 등 농기계 23건, 오토바이 18건, 버스 1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장소별 화재현황(최근 3년간)

| 구분    | 계    | 고속도로 | 공지  | 기타도로 | 일반도로 | 주차장 | 터널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|
| 계     | 685  | 125  | 122 | 36   | 300  | 101 | 1  |
| 2018년 | 244  | 47   | 41  | 13   | 110  | 32  | 1  |
| 2019년 | 210  | 38   | 38  | 12   | 93   | 29  | -  |
| 2020년 | 231  | 40   | 43  | 11   | 97   | 40  | -  |
| 비율    | 100% | 18%  | 18% | 5%   | 44%  | 15% | 0% |

○ 장소별로 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44%(300건), 고속도로 18%(125건), 공지 18%(122건), 주차장 10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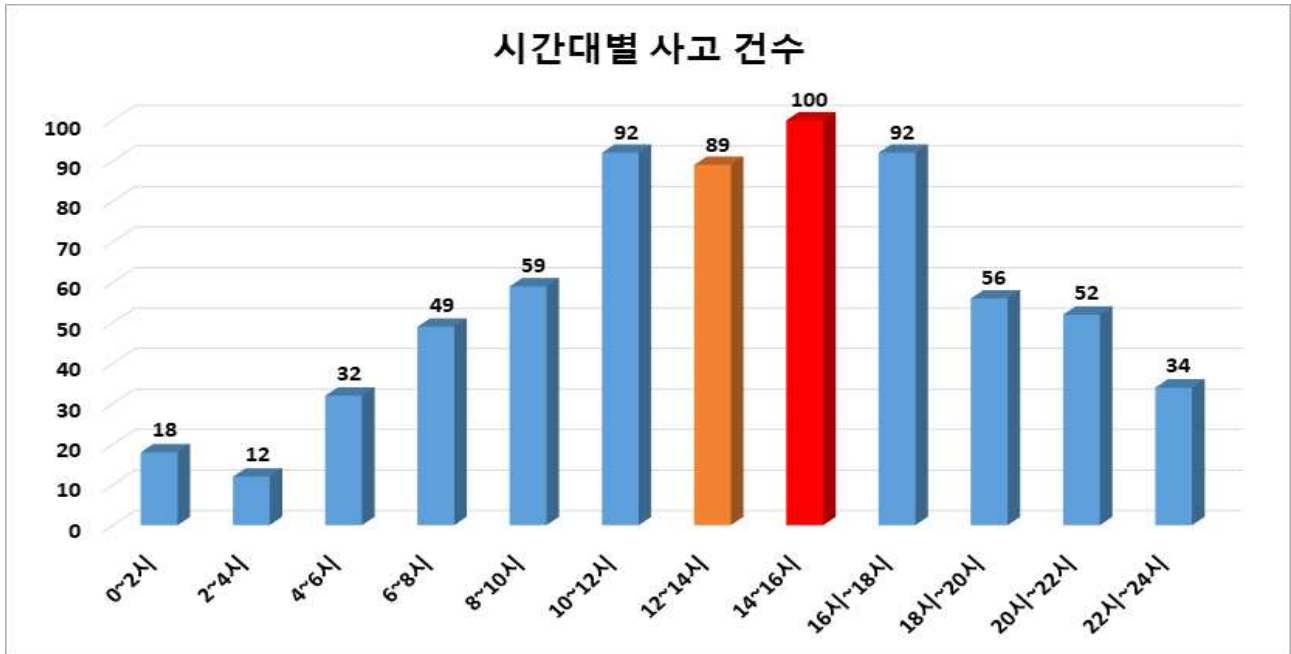
□ 원인별 화재현황(최근 3년간)



○ 원인별로 보면 기계적 요인이 38%(257건), 전기적 요인이 21%(143건), 부주의 18%(122건), 교통사고 9%(65건), 미상 68건 등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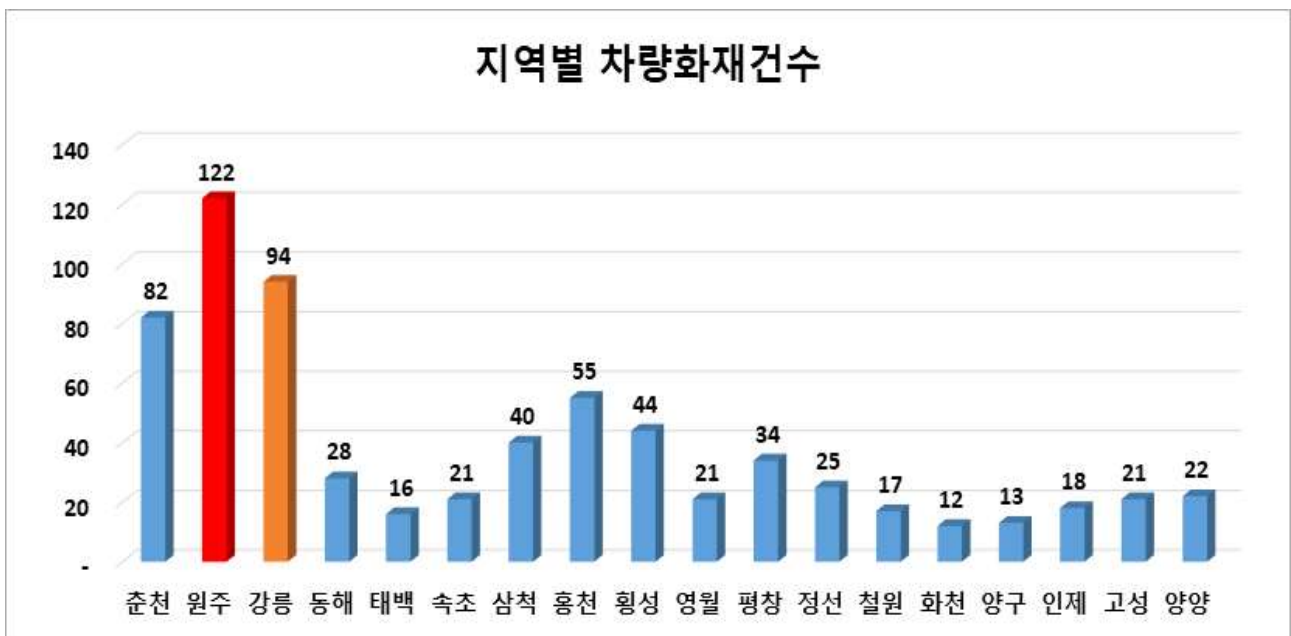
기계적 요인 중에서는 여름철 무더위 및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 177건, 오일·연료 누설 43건, 정비 불량 1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시간대별 화재현황(최근 3년간)



- 시간대별로 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14~16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새벽인 2~4시 사이가 가장 적었다.  
여름철 휴가 등으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낮 시간대에는 졸음쉘터, 휴게소에 정차하여 차량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하여야 한다.

□ 지역별 화재현황(최근 3년간)



- 지역별로 보면 원주 18%(122건), 강릉 14%(94건), 춘천 12%(82건), 홍천 55건, 횡성 44건, 삼척 40건, 평창 34건, 동해 2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**□ 차량 사전 점검은 필수**

- 실내 및 엔진룸에서 연료냄새가 나는지 엔진룸을 열어 연료라인 계통 확인
- 오일은 기계장치 윤활 및 냉각에 영향을 주어 순환하면서 각종 장치의 발열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오래된 오일은 교환하고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여야 함
- 엔진룸에 있는 각종 배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
- 에어컨 장치 역시 배터리에 무리를 주게 되며, 배터리 연결선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가동을 피하고 수시로 차량을 쉬게 함
- 냉각수를 수시 보충하고 엔진룸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청결유지

**□ 주행 중 안전수칙**

- 주행 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꽂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.  
(무심코 버린 담배꽂초에 의해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)
- 폭발위험이 있는 차내에 라이터나 배터리, 스프레이 등을 두지 않는다.
-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.  
(위험물 운송차량, 가스운송 화물차, 7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)
- 주행 중 차량온도계의 지침이 올라가거나, 보닛 안쪽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거나 차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끄고 점검한다.
- 차에 불이 붙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엔진을 끄고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되, 최초진압에 실패하면 최소 30미터 거리를 두고 신고한다.